

보도시점 2024. 6. 7.(금) 배포 2024. 6. 7.(금)

재외동포청 “전북·전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신청하세요”**- 8월31일까지 ‘한상넷’ 접수…기업전시회 부스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받아**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오는 10월 22~2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(전북대학교)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6월 5일부터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.
 - 신청은 8월31일까지 한상넷 홈페이지(www.hansang.net)에서 할 수 있다. 참가자는 국내 및 재외동포 바이어와 셀러, 참관객으로 구분한다.
 - 참가자 신청과 함께 기업전시회 부스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받는다. 일반인의 참가는 무료다.
- 이번 대회는 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 설립이후 국내에서 여는 첫 행사로,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재외동포청,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, 재외동포청, 전북특별자치도, 전주시, 중소기업중앙회, 매일경제·MBN이 주관하는 행사다.
 - 대회는 기업전시회,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,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리딩 CEO 포럼, 영비즈니스리더 포럼, 벤처캐피털(VC) 투자포럼 등 최근 경제이슈를 반영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.
 - 또한 청년 창업경진대회, 해외 인턴십 설명회, 전북지역 문화·관광·산업시찰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.

- 지난해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국내 및 재외동포 기업 31개국 7천825명이 참가했고, 500개 전시부스 설치, 1만7천227건의 투자상담, 계약체결 예상 금액 5억 7천260만 달러 등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.
-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“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참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” 면서 “재외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” 고 요청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	책임자	과 장	강 모 세	032-585-3220
		담당자	사무관	박 용 준	032-585-3297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